

南川 權斗文의 『虎口日錄』을 통해 본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 양상과 의미*

한 의 송**

- I. 머리말
- II. 南川 權斗文의 『虎口日錄』 관련 기록의 양상
- III. 『虎口日錄』에 나타난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 양상
 - 1. 孝의 구현을 통한 가족 중심적 가치의 천명
 - 2. 忠愍에서 발현된 계급을 초월하는 가족 중심적 인류애 경험
 - 3. 포로 신분 속에서 포괄적 가족의 중심인 君에 대한 忠의 신념 표출
- IV. 『虎口日錄』에 나타난 가족윤리구현과 그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南川 權斗文의 『虎口日錄』에 대한 연구로 그동안 학계에 거의 알려진 바 없었던 권두문이라는 문인과 『호구일록』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뒤, 유교이념이 가족 내에서 작동되는 양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호구일록』이라는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忠·孝·烈’의 유교이념이 핵심적으로 작동하며, 그 실제적 양상이 어떤 측면에서 기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호구일록』에 부각된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양상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 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 lovehes@hanmail.net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인 권두문은 일자별 기록을 통해 본인이 겪은 사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쟁에 반응하는 다양한 계급의 인물군상을 일기라는 생생한 체험 기록으로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저자는 먼저 전쟁 포로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목숨마저 부지하기 힘든 가운데 표출된 아들의 효심을 서술함으로써,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발현된 孝의 의미와 행동의 근원으로 가족이 핵심에 자리함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당연하나, 忠의 정신을 통해 내가 아닌 우리를 지향하는 가족 중심적 인류애의 경험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저자는 포로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로 상징되는 포괄적 가족의 중심인 임금에 대한 忠의 신념을 굳건히 표출하고자 했다. 이처럼 『호구일록』은 국가와 가족, 개인 사이의 충·효·열과 그러한 모습에서 자각된 나와 우리의 모습,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의미와 민중의 구원과 연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개인, 계급과 성별, 혈연과 비혈연을 초월하는 열린 가족으로 아울러 포용하고 연대하고자 한 가족윤리의 구현이 작동된 양상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록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고는 『호구일록』을 통해 전쟁 포로라는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한 인간의 고뇌와 두려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애와 계급을 초월한 민중과의 연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기가 가진 내면성의 발산을 통해 개인과 가족, 전쟁과 국가의 문제를 한 개인의 시선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는 측면에서 『호구일록』은 그 충분한 사적 위상을 가진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전쟁을 통한 국가의 의미, 그 속에 위치한 개인과 가족의 상처는 당대의 인간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적절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추후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權斗文, 『虎口日錄』, 壬辰倭亂, 전쟁포로, 유교이념, 인류애, 전유, 가족윤리

I. 머리말

문학사에서 日記는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당대 일상사와 미시사를 대변하는 생생한 사료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개인 일기라 할지라도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대사와 지역사 그리고 일상사의 기록이라는 기록성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기에 그러했던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사적 기록이 역사적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대신함을 의미한다.

일기의 경우 주로 생활일기, 사행일기, 유배일기, 독서일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일기란 개인 일상의 기록으로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일기는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저자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때문에 일기 속에는 생활공간, 교유관계, 개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 등 다양하면서도 내밀한 개인의 기록들이 일상의 공백과 기억의 부재를 대신한다.

일기에 대한 문학적 관심은 진작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¹⁾ 개인 일기는 다수의 자료가 산재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영남 지역 문인의 일기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번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²⁾ 호남 지역 문인의 일기자료에 대해서는 문헌현황 정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³⁾

본고의 텍스트인 南川 權斗文(1543~1617)의 『虎口日錄』은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한 전쟁 포로 일기에 해당된다.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 동

1) 이우정,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제이앤씨, 2008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해안, 2012 ; 정우봉, 『조선 후기의 일기문학』, 소명출판, 2016 참조

2)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기관 소장 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일기국역총서를 지속적으로 번역, 출간하고 있다.

3) 김미선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8, 호남학연구원, 2015 ;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 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 「호남 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참조.

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위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 형식을 취해 기록한 것이다.

임란시기 전쟁포로에 대한 기록은 일본에서 피로체험을 기록한 실기류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姜沆(1567-1618)의 『看羊錄』, 魯認(1566-1622)의 『錦溪日記』, 鄭慶得(1569-1630)의 『萬死錄』, 鄭好仁(1579-?)의 『丁酉避亂記』, 鄭希得(1573-1640)의 『月峰海上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실기류들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전란이라는 특수성에 포로라는 한계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대단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료로 주목되어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⁴⁾ 하지만 이들 자료는 주로 일본으로 피랍되었던 전쟁포로 실기류이기에 국내 포로일기 자료라는 독창성은 『호구일록』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천 권두문의 『호구일록』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텍스트가 가진 특이성으로 인해 학계의 관심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다.⁵⁾ 권두문의 문집인 『남천집』 해제를 통해 소개되거나,⁶⁾ 임란 관련 실기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정도로 존재가 간헐적으로 알려졌을 뿐, 자료적 위상에 비해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⁷⁾

-
- 4)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 장경남, 「임진왜란 포로 기억의 서사화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 『민족문화사연구』 54, 민족문화사학회, 2014 ;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 전송희, 「포로서사 독법에 대한 소고」, 『동양한문학연구』 48, 동양한문학회, 2017 등 참조.
 - 5) 최근 동양대학교 한국선비연구원에서 저자인 남천 권두문의 문집 『남천선생문집』을 번역하면서 『호구일록』 또한 번역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주선현문집 국역총서2, 『국역 남천선생문집』,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6 참조.
 - 6) 유교넷, 『호구일록』해제, 한국국학진흥원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문집해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8 ;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해제』 6, 2005 참조.
 - 7) 장경남은 임란 실기문학의 서술 특징과 관련하여 『호구일록』을 언급하면서 편년체적 서술방식을 특징으로 주목한 바 있다. 한편 방기철은 조선관료의 입장에서 일본군을 바라본 시각을 『호구일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경남, 「임란 실기문학의 서술 특징 연구」, 『송실어문』 13, 송실어문학회, 1997 ; 방기철, 「임진왜

『호구일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작단계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저자의 문집인 『남천집』이 번역된 관계로 저자의 傳記와 交遊, 학문적 성향 등에 관해 접근이 수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인 남천에 대한 인물 연구가 기본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점을 유념하되 본고에서는 『호구일록』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텍스트 인식의 시각을 살펴본 뒤, 『호구일록』을 통해 전쟁과 국가, 개인과 가족 사이에 작동하는 유교이념이 가족주의⁸⁾와 어떻게 연결되어 구현되고 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南川 權斗文의 『虎口日錄』 관련 기록의 양상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쓴 行狀에 따르면 공의 휘는 斗文, 자는 景仰, 자호는 南川으로 본관은 安東이다. 고려 태사 權幸의 후예로, 좌사간 權定の 칠세손이다. 아버지는 휘가 有年으로 掌樂院 主簿를 지내고 通政大夫 刑曹參議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權氏로, 淑夫人에 추증되었는데, 생원 克常의 따님이다. 공은 뛰어난 재주를 타고 나 책을 읽으면 글을 통째로 외웠고, 일찍부터 문장을 잘 지어 嘯臯 朴承任(1517~1586) 선생이 그를 자주 칭찬하였다. 임진년(1592) 봄에 平昌郡守로 부임하여 좁고 험준한 지역에 목책을 설치하여 군사를 모집하고

란기 조선 관료가 바라본 일본군」, 『군사』 6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참조.

8) 가족주의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상에 기반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장하는 가족주의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혈연과 비혈연을 뛰어넘어 발현되는 보편적 인류애의 바탕에 범가족성이라는 윤리의식이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힌다. 이는 한국의 전통시대 가족주의가 보수적이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가치지향을 잃어내고자 하는 시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시대 가족에 대한 최근 논의는 한의승, 「〈武屹精舍〉題詠詩를 통해 본 空間과 학적 家族의 관계와 그 의미」, 『영남학』 67,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8; 정우락, 「백곡 정곤수의 가족사랑과 가문의식 연구」, 『국학연구』 37, 한국국학진흥원, 2018, 참조.

군량을 비축하여 힘을 다할 계책을 세웠으나 결국 부자가 함께 사로잡혔다. 이후 寧越에서 原州로 이동하다가 하늘에서 우레가 크게 치며 비가 쏟아지자, 갇힌 몇몇 사람과 함께 벽에 구멍을 뚫어 탈출하였다. 이후 柏巖 金玢(1540~1616)이 安集使를 맡아 의병을 일으키자, 병든 몸을 이끌고 진중에 나아갔다. 기해년(1599) 이후에 珍山·錦山·永川군수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을사년(1605)에 內資寺正에 배수되었고, 가을에 通禮院의 左通禮로 옮겼다. 이후 병이 있다 아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10여 년을 한가하게 지내며 다시는 벼슬에 나갈 뜻을 두지 않았고, 백암 김륵 등과 함께 九老會를 만들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한가로이 지내다 정사년(1617)에 삶을 마쳤다.⁹⁾

남천의 전 생애에 걸쳐 가장 큰 사건은 임진왜란 시기에 겪은 포로수용이었다. 이는 본고의 텍스트인 『호구일록』으로 수렴, 정리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호구일록』은 남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 문인들에게 회자되었던 흔적이 발견된다. 『호구일록』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은 『남천선생문집』이나 여타 문인들의 문집 속에 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호구일록』의 성향을 드러내 보이는 몇 가지 기록을 중심으로 『호구일록』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란 초에 평창 군수 권두문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지은 『虎口錄』에 이르기를, “왜장 원개연(源介緣)이 평창을 쳐서 함락시키고 나 권두문과 아들 권주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하루는 선생의 이름을 글로 써서 묻기를, ‘지금 무슨 벼슬로 있는가?’ 하기에, ‘현재 적을 정토하는 책임을 맡아 영남에 있다.’고 대답하니, 또 묻기를, ‘이덕형은 어디 있는가?’ 하므로, ‘국왕을 모시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또 묻기를, ‘너희 나라에서 김성일이나 이덕형 같은 이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다. 이는 대개 깊이 공경하고 꺼린 것이다.” 하였다.¹⁰⁾

9) 權斗文, 『南川先生文集』 卷4, 〈行狀〉 참조. 이하 원문 및 번역은 동양대학교 한국선비 연구원에서 간행된 『국역 남천선생문집』, 2016을 따르되, 필자가 가감하여 사용한다.

10) 金誠一, 『鶴峯集』 부록 권1, 〈年譜〉, “壬辰亂初, 平昌守權斗文被擄, 撰虎口錄云, 倭將源介緣攻陷平昌, 擄斗文及其子黈. 一日, 書問先生姓名, 今作何官? 答曰: 見任征討

위의 예문은 鶴峯 金誠一(1538~1593)의 年譜에 실린 『호구일록』 관련 기록이다. 내용의 중심은 조선의 인물 가운데 왜군에게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학봉과 李德馨(1561~1613)이 인식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텍스트로 『호구일록』이 소환되었다는 게 중요하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이 문집 내에 산재해 있고 그것들은 주로 『龍巳日記』란 제명 하에 수렴되어 있다.¹¹⁾ 그런 자료들에 비하면 『호구일록』은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거 자료로 소환된 점은 그만큼 자료의 적실성이나 기록성의 측면이 인정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구일록』과 관련된 기록으로 참고할만한 자료로는 학사 김응조가 쓴 〈虎口錄跋〉이 있다. 남천의 문인인 학사 김응조가 『호구일록』을 살펴본 뒤 쓴 跋文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문은 일반적으로 책이나 글의 뒤에 쓰는 後序를 가리킨다. 서사증의 『文體明辯』에서는 “열람하는 자나 다른 사람이 요구한다든가, 혹은 스스로 느낀 바가 있다든가 하면, 다시 글을 지어 마지막의 곳에 엮어 두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발문을 설명하고 있다.¹²⁾

학사 김응조의 〈호구록발〉 역시 내용을 접한 뒤 느끼게 된 바가 있어 지은 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학사가 감발하게 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아래 예문에서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그것을 기려서 표창한 은전이 정렬에만 그치고 충과 효에는 이르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아마도 전란으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동안의 일로 스스로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신이 미처 들어서 알지 못했던 것인가?¹³⁾

在嶺南. 又問李德馨何在? 答以扈駕. 又問汝國如金·李者幾人? 蓋深有所敬憚也.”

11) 영남 문집 내에 『용사일기』란 제목으로 수렴된 것만 대략 10여종 이상을 찾을 수 있다.

12)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477쪽 재인용.

13) 金應祖, 『鶴沙集』 卷5, 〈虎口錄跋〉, “獨惜乎國家旌褒之典, 獨及於烈, 而不及於忠與孝. 豈蒼黃間事, 深自韜晦, 而道臣見聞有未逮而然歟?”

위의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학사가 〈호구록발〉에서 강조한 것은 충과 효에 대한 국가의 포상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烈에 대한 강조는 그 나름의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전쟁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 부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나 마찬가지였다. 상대적으로 건장한 남성 또한 본인 한 몸 지키기에도 역부족이었으니 부녀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랬기에 貞節행위는 당연히 旌閭와 褒賞의 대상으로 충분했으며, 이를 보상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사는 그에 못지않게 충과 효에 대한 보상 역시 충분히 이뤄져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호구록〉에 기록된 충과 효의 보상 역시 열과 동등한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조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었고, 학사는 이에 대한 강조의 차원에서 〈호구록발〉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木齋 洪汝河(1620~1674)의 경우에는 『호구일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칠언절구 2수를 창작하여 자료적 가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아래 예문이 바로 목재가 창작한 절구시에 해당된다.

身輕白刃學當熊,
忽墮蒼崖萬仞崇.
玉碎花飛容易事,
誰知捍衛所天功.

당웅을 배운 듯 몸으로 선뜻 칼날에 맞서더니
만 길 높은 푸른 벼랑에 홀연 몸을 던졌네
옥 깨어지고 꽃잎 날리듯 쉽게 한 일이지만
막아 지킴 절개 하늘의 도움인 줄 누가 알리오

憑虛一夕動風雷,
鐵鎖重關也自開.
誰識天翁感精禱,
終教夜半負爺來.

저녁 내내 허공 가득 바람 우레 진동하고
쇠로 겹겹이 잠긴 문이 또 저절로 열리네
누가 알리오 하늘이 정성스런 기도에 감응해
마침내 한밤중에 아버지 업고 나오게 한 줄을¹⁴⁾

14) 洪汝河, 『木齋集』 卷2, 「書虎口錄後詩」

위의 2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핵심은 권두문의 副室인 康氏의 절행과 아들인 권주의 효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자인 목재는 『호구일록』을 통해 표상된 중요한 가치로 ‘孝烈’을 부각시킨 것이다. 목재의 이런 시각은 위 시의 서문 격인 并序에도 잘 드러나 있다. 병서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실 강씨의 열성이 있어 처음에 공의 죽음을 막았고, 진사공의 효성이 있어 마지막에 공이 죽음을 벗어났으니, 공이 충성을 온전히 함은 자못 하늘이 공을 곡진하게 이루어준 것이리라. 비록 그렇지만 그 열성과 효성은 실상 공의 집안 가르침에 근본을 두었으니, 공이 본래 그 충성이 있었음이 더욱 분명하고, 이것이 공께서 하늘의 도움을 받은 까닭이리라. 을사년 청화절(3월)에 후학 흥여하는 산택재에서 공경히 쓰고, 절구 두 수로 잇는다.¹⁵⁾

병서와 시를 관통하는 시각은 ‘효열’이다. 하지만 목재는 효열을 추동한 밑바탕에 충을 핵심 가치로 두었다. 충·효·열이 상호 동등한 위상을 차지하는 덕목이긴 하나, 목재는 세부적인 비중에 있어서 효열의 상위에 충이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임금이 존엄한 국가의 주체이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된 입장에서 효열을 바탕으로 둔 충을 구현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에 해당된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호구일록』을 바라보는 목재의 텍스트 해석 방식 이기에 『호구일록』에 기술된 권두문의 시각과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쟁포로를 체험한 당사자인 권두문은 『호구일록』을 통해 기억을 잊지 않고자 생생한 현장성을 최대한 구현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생한 기억의 재현은 결국 개인의 기록임과 동시에 역사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동시에 지녔단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억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의도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15) 洪汝河, 『木齋集』 卷2, 「題權通禮南川公虎口日錄後 并序」, “有側室康之烈, 捍公於始得不死, 有進士公之孝, 脫公於終, 得不死, 而以全公之忠, 殆天所以曲成公歟. 雖然, 之烈也之孝也, 實本諸公之家教, 則公能有其忠益驗矣, 此公所以獲佑於天也歟. 乙巳清和後學洪汝河, 敬書山澤齋中, 繼以兩絕.”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 이를 추적해 보도록 하자.

Ⅲ. 『虎口日錄』에 나타난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 양상

1. 효의 구현을 통한 가족 중심적 가치의 천명

『호구일록』은 기본적으로 효가 구현되는 양상에 대한 기술에 비중이 놓여 있다.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개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뭉칠 수 밖에 없었다. 그 핵심적 위치에 家長이라는 아버지가 존재했고, 가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호구일록』을 통해서 보듯이 전쟁포로로 잡히는 순간, 가족은 개인 단위로 해체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이는 가족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문제적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개인의 생존권과 ‘효’라는 이념윤리가 충돌하는 게 그것이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을 연결시키는 기본윤리이나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작동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전쟁을 중심으로 기록된 실기류를 살펴보면, 이념보다 생존이 앞세워지는 상황에 대한 서술이 다수 등장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호구일록』에서는 생존과 이념의 충돌 속에서 무엇이 포착, 강조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 ㉔ 주는 아버지는 죽이고 자식은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늙은 부친의 병이 위중하셔서 잠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병가에서도 효제를 우선으로 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죽인 뒤에 그 자식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만약 내 아버지를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마땅히 함께

죽을 따름입니다.’¹⁶⁾

- ㉠ 주가 섬돌에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리며 말하길 : ‘늙으신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묶여계신 까닭에 병이 날마다 심해져 목숨이 오늘내일 하시니 바라건데 속히 풀어주시오’라고 하며 말과 눈물이 함께 터지니 왜인 수장이 급히 무리를 불러 부축하여 일으켜 주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한 잠시 결박을 느슨하게 해주도록 영을 내렸다.¹⁷⁾

위의 ㉠과 ㉡예문은 권두문의 아들인 권주가 아버지와 함께 전쟁포로로 잡혀 온갖 고난의 역정을 함께 겪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중요하게 포착된 지점은 권두문의 아들인 권주의 행동이다. 즉, 자신의 생사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함 속에서도 아버지께 대한 효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과 효의 충돌에서 아들인 권주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께 대한 효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호구일록』에서 권주는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가운데, 왜장의 눈에 띄어 일본으로 같이 가기를 회유받기도 한다. 이는 17세기 소설인 〈崔陟傳〉에서 간취되는 대목과 유사한 상황이다.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으로 납치된 피로인의 수는 2만에서 40만명까지 추정될 정도로 편차가 큰 편이다. 하지만 피로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을 일종의 전쟁 전리품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전쟁 앞에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말살되는 참혹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적인 것이다.

때문에 효라는 행위의 구현은 전쟁 속에서 일반적으로 실천하기 힘든 행위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권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

16) 權斗文, 〈虎口日錄〉, 8월 15일, “駐慮其將殺父存子, 必如前所聞者, 故卽應之曰: ‘老父病重, 不可暫離. 況兵家以孝悌爲先, 寧有殺人之父而欲得其子之心者乎? 若不放送我父, 則我當俱死而已.’”

17) 權斗文, 〈虎口日錄〉, 8월 20일, “駐叩頭濺血於堦石曰: ‘老父久繫, 病日益甚, 命在今明, 乞速放還.’ 言淚俱發, 倭魁急呼其徒, 趲救扶起, 溫辭慰之, 且令暫緩結縛之索.”

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절절한 선언도 행해지고, 때로는 섬돌에 머리를 박아 피를 흘려 가면서까지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자식의 애절한 효심을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적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까지 이른다.

이러한 장면 서술은 효에 대한 저자의 의도성을 일정부분 드러낸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계산된 서술로만 온전히 해석할 수는 없다. 전쟁 포로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목숨마저 부지하기 힘든 가운데 피어난父子간의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행동이 서술의 주된 초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시선에서 바라본 아들의 무한한 효심의 발양은 그 자신 또한 아들의 입장이기도 하기에, 과연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발현된 효가 어디에서 촉발된 것이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점은 적군인 왜의 입장에서조차 전쟁이라는 현실을 벗어나 본국에 두고 온 가족을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며, 보편적 인류애를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적군이 권두문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라 하겠다.

『호구일록』은 선언적 구호로서의 효가 아닌 실천적 의미에서의 효를 사실적 장면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存亡의 상황에서 효를 구현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근원에 자리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지를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2. 忠恕에서 발현된 계급을 초월하는 가족 중심적 인류애 경험

전쟁은 사전에 방지해야 될 인류의 가장 가혹한 폭력에 해당된다. 생기기 않도록 상대국간에 외교가 필수적이거나, 권력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생각하기 쉬운 게 전쟁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은 民衆이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될 최우선의 위치에 있으나 실제로는 가장 소외되고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게 되는 계층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가족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특히 난리를 피하기 위해 산속으로 숨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민중들은 가족 단위로 서로 얹혀 지내게 된다. 각기 다른 가족이긴 하나 고난을 함께 하고 있다는 동류의식이 생기고,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구일록』은 이러한 민중들의 연대 의식이 곳곳에 기술되어 있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민중의 삶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낮에 마을 사람인 이덕수가 외를 가지고 오니, 우리들이 나눠 먹으면서 말하길 : ‘이것은 문산이 연나라 옥에 있을 때 먹었던 것인데, 천년이 지나도 같구나.’라고 하였다. 덕수라는 자는 참판 이기의 노비로 충주 품관인 이윤성의 종제였다. 후의에 감격했다.¹⁸⁾

㊤ 주인 늙은이가 나에게 일러 말하길 : ‘일찍이 평창군수가 자제를 거느리고 함께 탈출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유심하여 반드시 지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형세와 용모를 보니 불문가지입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말을 퍼뜨릴까 염려되어 문 밖에 여러 사람들 모두를 곧바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왜적들이 잡으러 오더라도 도로가 막혔으니 삼가 가벼이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이곳은 궁벽한 곳인 까닭에 다 행히 며칠 머무르시면서 형세를 살핀 뒤 가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중략) 주인 늙은이가 말하길 : ‘여기는 적에게 붙은 사람이

18) 權斗文, 〈虎口日錄〉. 8월 29일, “午州人李德守來饋西瓜, 吾等分食曰: ‘此文山在燕獄時所食, 千載而同也.’ 所謂德守者, 李參判璽之奴, 而忠州品官李允成之孽從弟也. 厚意可感.”

없고 또한 다른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러한 이치가 만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¹⁹⁾

㉮ 또 한집을 두들기니 중이 먼저 나오고 주인이 뒤따라 나왔다. 불을 들고
맞아주며 내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배고프고 피곤한 줄 알아 죽
을 쏘아 주었다. 승명은 서진이고 주인은 김언야라고 했다. 중은 군수 이
대진의 재사에 거쳐하면서 경진과 교분이 있었다. 경진이 잡혀갔다가
탈출하게된 연유를 듣고 놀라길 그치지 않았다. 밤이 이미 깊었으나 나
는 곧 떠나길 재촉하여, 서진에게 길을 청하자 길 안내를 해주었다. 뜻이
감동스러웠다.²⁰⁾

위의 예문 ㉮, ㉮, ㉮는 권두문 부자가 왜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
출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평범한 민중들에게 조건없는 도움
을 받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권두문 부자에게 도움을 준 민중들의 신
분은 노비, 늙은 평민, 스님 등으로 이른바 사대부가의 인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기층을 이루는 평범한 민중에서 노비나 스님과 같은 조선사회의
불평등 계급에까지 다양하다. 불평등 계급의 입장에서는 기득권 사대부
의 몰락하고 초라한 모습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평소 그렇게 기득권층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일견 통쾌함마저
들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인 권두문 부자의 입장에선 기층 민중들에게 당당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이나 구원을 민중들에게 요청하

19) 權斗文, 〈虎口日錄〉, 9월 5일, “謂余曰: ‘曾聞平昌倖率子弟與中房逃脫. 吾意此路
幽深, 必或由歷也. 今見形貌, 不問可知. 仍慮其人煩言播, 故門外諸人皆已送歸矣. 賊
徒追捕, 道路梗塞, 愼勿輕動. 此處窮僻, 幸留數日, 觀勢發往何如?’ (中略) 主叟曰:
‘此無附賊之人, 且他里隔遠, 萬無是理, 勿疑勿疑.’”

20) 權斗文, 〈虎口日錄〉, 9월 7일, “又叩一家, 有僧先出, 主人隨之. 秉火以迎, 入余房
中, 知吾等飢困, 作粥饋之. 僧名西珍, 主人則金彦也. 僧居李郡守大震齋舍, 而於景鎮
亦有素. 聞景鎮被擄還出之由, 驚歎不已. 夜已半矣, 吾則催發, 西珍請從而指路, 其意
可感.”

지 못했다. 민중 또한 기득권층의 몰락한 모습을 외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중은 결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기득권층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꺾박과 불평등의 문제를 뛰어넘는 인류애를 발휘하여 기득권층의 어려움을 감싸주었다. 위의 예문은 이러한 민중들의 인류애를 유감없이 보여준 장면에 해당된다. 저자인 권두문은 본인이 직접 받은 감동적인 후의였기에 각인된 기억을 바탕으로 적실하게 서술하였던 것이다.

『호구일록』속에는 곳곳에서 권두문 부자를 도와주는 민중들의 다양한 조력이 드러난다.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나 마찬가지며, 자기 가족의 안위가 가장 우선시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忠恕’의 정신이 평범한 민중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실천된 양상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孟子』에서 언급한 ‘惻隱之心’²¹⁾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당대 민중의 고난 극복 의지와 이타적 행위는 전쟁이라는 강력한 폭력 속에서도 결코 굴복되지 않는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호구일록』은 이러한 지점을 놓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여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포로 신분 속에서 포괄적 가족의 중심인 君에 대한 忠의 신념 표출

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난리 속에서 인간의 목숨은 한낱 파리 목숨과 같은 처지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 보다 나라를 위한 忠을 구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는 구현 그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비쳐질 만큼 자신의 목숨보다

21) 『孟子』, 「公孫丑」,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국가에 대한 충을 추념하고 체화한다는 것은 거의 국가를 종교적 신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의 표출은 조선시대 지식인에게 있어서 체화된 실체나 다름없었다. 유가 전통의 학습과 이념화를 통해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상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간 배경이 깔려 있었기에 개인 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충의 개념이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점은 조선 중기 士人으로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家國의 상징인 임금에 대한 신념으로 충이 소환된 것임을 지적한다.

『호구일록』의 저자인 권두문 역시 이러한 인식 체계가 체화된 인물임에 다름없었다. 그 자신이 전쟁 포로로 잡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국가와 집안의 존망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래 예문에서 이러한 지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왜장 풍신길성이 강원감사라 자칭하며 지나는 고을마다 글을 먼저 보내고 방을 붙이니 산골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두 그에게 쏠려 따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나는 분명히 지사함 등에게 말하길 “그대들은 모두 임금으로부터 주신 옷을 입고, 먹거늘 어찌 자기 몸만 돌보는가? 하물며 지금 국가와 가족의 존망이 눈앞에 있고 죽고 사는 것이 장차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찌 마음과 힘을 합하지 않겠는가?”하니 모두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²²⁾

내가 말하길: “남아가 죽게 되면 죽을 뿐이나, 불의한 것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위로는 임금께서 蒙塵播遷 하신게 생각나고, 가운데로는 늙으신 부모님께서는 난리에 쫓기시는 게 생각나며, 아래로는 내 신세가 박명하니 내 처지에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느냐?”²³⁾

22) 권두문, 〈虎口日錄〉, 8월 9일, “倭將豐臣吉成自礪江原監司, 所經之邑, 必出先文, 山谷愚氓, 靡然從之, 可痛也. 吾謂智士涵等曰: ‘君等皆衣君食君, 寧顧其身? 況今舉家一寶, 死生將迫, 盍相與一乃心力.’ 僉曰: ‘敢不從命?’”

23) 권두문, 〈虎口日錄〉, 8월 15일, “吾曰: ‘男兒死則死耳, 不能爲不義屈. 況上念 聖主播遷, 中念老父奔竄, 下哀此身命薄, 涕豈無從而出乎?’”

위의 두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시대 지식인에게 국가와 임금은 곧 본인의 목숨보다 더 지켜야 하는 절대적 가치나 다름없었다. 국가는 포괄적 가족²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그 중심인 임금은 포괄적 가족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임금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는 건 가족이란 존재의 근원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개인의 희생을 일정부분 감내해야만까지 지켜야만 했던 임금은, 단지 국가의 군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권두문이 처한 현실은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어떻게 손을 쓸 방법도 없는 상태를 자각하는 것 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자책과 분노는 이루 말하기 어려웠으며, 국가와 임금에 대한 불충은 두고두고 평생의 짐으로 죽을 때까지 벗기 어려운 멍에로 드리워졌다.

그러나 저자는 국가에 대한 불충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뿐, 그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천인 국가의 무방비나 무력함을 응시하지 않았다. 전근대시대 조선의 지식인에게 국가나 임금의 무능은 결코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문제 소지는 국가가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온전히 개인이 감내해야만 하는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조선시대 지식인이 국가에 복무하는 방법이었으며, 『호구일록』에 표출된 충의 신념은 바로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것이었다.

IV. 『虎口日錄』에 나타난 가족윤리구현과 그 의미

본장에서는 『호구일록』에 나타난 가족윤리구현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

24) 본고에서 사용한 ‘포괄적 가족’이란 국가와 개인의 대립적 관계를 뛰어넘는, 전통시대의 가문중심, 가족중심적 삶의 경향을 국가 전체적 의미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석해 보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 『호구일록』은 무엇보다 국내 전쟁 포로 일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부각된 바 있다. 이점은 기존의 전쟁포로 관련 실기류 자료들이 주로 일본으로 피랍된 경험에 의해 저술된 것과 비교가 된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간양록』, 『금계일기』, 『만사록』, 『정유피란기』, 『월봉해상록』 등은 해외로 피로체험한 대표적 기록으로 이들의 특징은 해외로 사로잡혔다 살아 돌아온 자들의 기록이기에 기본적으로 자기 신원서의 성격이 강했다.²⁵⁾ 때문에 기록자의 시선과 서술에 의한 왜곡이나 굴절이 가미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호구일록』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전혀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호구일록』 8월 29일조를 보면 남천은 號召使 李璽와 觀察使 姜紳, 助防將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필을 구하여 景鎭에게 쓰라고 한다.²⁶⁾ 그 구체적 내용은 왜적들의 형세와 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추후 호소사·관찰사·조방장에게 올리는 글로 문집 내에 수록된다.²⁷⁾ 이점은 위에서 언급한 임란시기 해외 피랍체험 실기류 기록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다.²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탈출한 사람은 인간의 생애적 관점에서는 천운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거의 운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이들을 볼 경우, 전쟁 속에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진에서 무사히 탈출했다는 사실은 저간에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즉,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목숨을 살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25) 선행 연구 가운데 정출현, 조현우, 전송희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26) 權斗文, 〈虎口日錄〉, 8월 29일조 참조.

27) 權斗文, 『南川先生文集』 卷3, 〈上號召使, 觀察使, 助防將書〉

28) 이는 전쟁포로가 살아 돌아온 까닭에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소환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탈출하여 목숨을 건진 것은 국가의 외교력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기에 국가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이었으므로, 은폐하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물론 전쟁에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생환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점에서 모순점이 발생하기에, 생환한 포로는 따뜻한 국가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을 마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자신의 생환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으며, 생환의 정당성과 명분을 아울러 밝혀야만 하는 일종의 자기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쟁 포로기록에 있어서 적의 정보나 실정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부분은 국가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증좌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해외 피로체험 기록이나 『호구일록』과 같은 기록은 당대의 경험을 개인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변호서와 같은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호구일록』은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타 임란관련 포로실기에 비해 탈출의 정당성과 명분을 전면적으로 그려내는 데 집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구일록』의 서술 시각과 내용을 분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술의 주된 정조는 전쟁 앞에서 국가와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나약하고 의존적인 개인과 험난한 현실적 질곡에서 인류애를 앞세우는 다수의 민중을 전면에 포착하고 있다.

『호구일록』의 성격이 개인의 신원진술서가 되어야 했던 여타 임란관련 실기류에 비교했을 때 다른 지점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즉, 개인의 신원진술 보고서가 아닌 가족과 민중의 도움에 의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인류애의 기록이 저자에게는 더 주안점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인류애의 바탕에는 가족 중심주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

었다. 즉, 전통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부모에 대한 효, 충서에 바탕을 둔 계급을 뛰어넘는 인간의 연대, 이러한 점이 결합되어 표출된 국가에 대한 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점이 전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와 개인, 계급과 성별, 혈연과 비혈연을 초월하는 열린 가족으로 아울러 포용하고 연대하는 가족윤리의 구현으로 작동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孝·忠·恕·忠’의 개념이 개인과 사회, 국가로 연결되면서 이념과 감성의 결합에 의해 전쟁이란 공통재난에 대처하는 중요한 가족윤리로 전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주목하여 진술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저자의 기록정신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호구일록』은 여타 실기류와는 달리 자신을 변호하려는 과장이나 왜곡, 은폐가 상대적으로 서술 밖으로 밀려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호구일록』은 이 지점에서 여타 해외 피로체험 실기류와 다른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권두문의 『호구일록』에 나타난 가족윤리의 구현과 그 의미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그동안 학계에 거의 알려진 바 없었던 권두문이라는 문인과 『호구일록』을 접한 당대인의 인식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호구일록』의 저술인식과 텍스트 이해의 핵심 지점으로 ‘충·효·열’의 유교이념이 가족 내에서 작동되는 양상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임란 전쟁포로의 피랍과정과 체험의 사실적 기록에 작동된 ‘충·효·열’의 위상을 가늠해 보는 지점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호구일록』에 부각된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저자인 권두문은 일자별 기록을 통해 본인 겪은 사실을 단순히 정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쟁에 반응하는 다양한 계급의 인물군

상을 일기라는 생생한 체험 기록으로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에 깔고 저자는 전쟁 포로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목숨마저 부지하기 힘든 가운데 표출된 아들의 효심을 서술함으로써,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발현된 효의 의미와 행동의 근원으로 가족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당연하나, 患難의 정신을 통해 내가 아닌 우리를 지향하는 인류애의 경험을 기록하여, 열린 가족으로 포용하고 연대하는 개인을 통해 가족중심적 지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포로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로 상징되는 포괄적 가족의 중심인 임금에 대한 충의 신념을 굳건히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호구일록』은 개인과 사회, 국가 사이에서 충·효·열이 작동되는 양상을 통해 나와 우리, 국가가 새롭게 호명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三綱行實圖』, 『五倫行實圖』 등을 통해 유교이념이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으로 대표되는 기층의 보편적 감성과 조응한 결과로 이해된다. 전쟁이라는 공통의 재난을 통해 유교이념이 개인, 사회, 국가의 교집합인 가족과 연결되면서 가족윤리로 전유되어 작동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시대 가족의 위계적, 폐쇄적 측면이 아닌 국가와 개인, 계급과 성별, 혈연과 비혈연을 초월한 포용적, 연대적 가족의 측면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통시대 가족의 의미를 기존과 다른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호구일록』은 포로체험을 기록한 문학이라는 텍스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사람들의 행동과 목소리, 다양한 감정의 편폭을 포착하여 수렴함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의미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본고는 『호구일록』을 통해 전쟁 포로라는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한 인간의 고뇌와 두려움,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애와 계급을 초월한 민중과의 연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

기가 가진 내면성의 발산을 통해 개인과 가족, 전쟁과 국가의 문제를 한 개인의 시선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는 측면에서 『호구일록』은 그 충분한 사적 위상을 가진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전쟁을 통한 국가의 의미, 그 속에 위치한 개인과 가족의 상처는 당대의 인간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적절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추후 관련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權斗文, 『南川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嶺南文集解題』, 영남대학교출판부, 1988.
영주선현문집 국역총서2, 『國譯 南川先生文集』, 동양대 한국선비연구원, 2016.
유교넷, 『호구일록』해제,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文集解題』6, 2005.
- 김미선, 『호남의 포로실기 문학』, 경인문화사, 2014.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제이앤씨, 2008.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해안, 2012.
이우정,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1995.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정우봉, 『조선 후기의 일기문학』, 소명출판, 2016.
- 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58, 호남학연구원, 2015.
———, 「문집 부록에 수록된 일기의 양상과 의의 -호남문집을 대상으로」, 『국학연구』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방기철, 「임진왜란기 조선 관료가 바라본 일본군」, 『군사』6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장경남, 「임란 실기문학의 서술 특징 연구」, 『송실어문』13, 송실어문학회, 1997.
———, 「임진왜란 포로 기억의 서사화와 그 의미」, 『지역과 역사』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전송희, 「포로서사 독법에 대한 소고」, 『동양한문학연구』48, 동양한문학회, 2017.
정우락, 「백곡 정곤수의 가족사랑과 가문의식 연구」, 『국학연구』37, 한국국학진흥원, 2018.

-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 『민족문화사연구』54, 민족문화사학회, 2014.
- 한의승, 「〈武屹精舍〉題詠詩를 통해 본 空間과 학적 家族의 관계와 그 의미」, 『영남학』67,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8.

Abstract

Appropriation aspects and meanings of family ethics of ideology of Confucianism through Nam-Chun(南川) Kwon-Du-Mun(權斗文)'s 『Ho-Gu-Il-Rok(虎口日錄)』

Han, Eui-soong

This paper is about Nam-Chun Gwon-Du-Mun's 『Ho-Gu-Il-Rok』 research and is analysis on Gwon-Du-Mun as writer and 『Ho-Gu-Il-Rok』 which is not well-known in academia.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s and meanings of realization on family ethics. The ideology of 'royalty, filial duty, faithfulness' fundamentally works to understand 『Ho-Gu-Il-Rok』 and it confirms which sides of practical aspects are described. Based on this, the emphasized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Ho-Gu-Il-Rok』 follow as below.

Gwon-Du-Mun's records with specific dates focus on not only simply recording peripheral incidents but also capturing reactions from different figures from different social status as vividly experienced records.

First, in a peculiar situation of war-prisoner, even though one self's life is at danger it shows that family is located in the center as the meaning of filial duty and the core of behavior at the most dramatic situation by capturing son's love for his parents. And even though it is natural to save one's life and his family in a war which does not guarantee anyone's life, it records experience of love for humanity

through the spirit of loyalty and forgiveness(忠恕) which pursues ‘us than me’. At last, this point could be found through the aspects where faithful royalty towards the king, a symbol of a nation, is expressed even when he was a war-prisoner.

Likewise, 『Ho-Gu-Il-Rok』 is a meaningful record in the way that it describes recognized one’s reflection and our image through nation, family and each individual’s royalty, filial duty, faithfulness and it also embraces the meaning of nation, savior of crowds and various kinds of aspects resulted from war.

This research shows one’s agony and dread in the cross road of life or death in unheare-of chaos and it vividly presents the springing-up love for the family in the situation and the bond of crowds crossing all classes through 『Ho-Gu-Il-Rok』.

『Ho-Gu-Il-Rok』 has its sufficiently meaningful status in terms of taking a stereoscopic view of individual and family and warfare and nation through one’s eyes. The meaning of nation through warfare and each individual’s and family’s scar in it are proper viewpoint to understand people and their history at their times in three dimensions. Later on, more profound analysis will be tried on this topic through follow-up research.

keywords

Gwon-Du-Mun(權斗文), 『Ho-Gu-Il-Rok(虎口日錄)』,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prisoner of war, ideology of
Confucianism, love for mankind, appropriation, family ethics